

5월 실국장회의 모두말씀자료(시장님)

'21. 5. 7.(금) 14:00 / 온나라PC영상회의

□ 가정의달,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 대응 총력

예년 같으면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벌어지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5.3.~5.9.)으로 엄중한 시기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특히 일부 시민들께서 백신의 안전성과 수급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걱정과 궁금증이 많아질 수 있음.
적극적인 안내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고 백신 수급에도 차질 없도록 집중 바람.

□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노력

5월 가정의 달에 들어 과연 우리 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돌아보게 됨.
두 가지 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해야 함.
바로 스쿨존 안전강화와 아동학대 근절임.

지난달, 스쿨존 안전강화를 자치경찰제의 첫 성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저 역시 지난 주 신광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후 긴급히 시행된 안전 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음.

지난 3일에는 우리 시가 4월 한 달간
인천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 264곳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와
선생님, 학부모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내년까지 과속·신호위반 단속 CCTV 233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1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전 학교에 한 개 이상의 옐로카펫을 만들 계획임.

학교주변 노상주차장은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도 추진해 나갈 것임.

그동안 교통흐름 등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되었던 18곳에 대해서도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하고, 이미 13곳은 심의를 완료하였음.

진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른들의 차량 통행과 주차편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공간임.
앞서 여러 개선책들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갈증이 있음.
마련한 개선책들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되,
더 깊은 고민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완해주시길 당부드림.

교통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에서도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기 바람.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람.
정부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운영 중인 전문가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강화한 대책을 조속히 정리하고 실행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임.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 달리 사적 영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이를 먼저 알고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
다른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민관 협력의 문화와 체계를 갖추고 있음.

5월 17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이 있음.
인천의 자치경찰이 어린이 안전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람.

□ 「K-바이오 랩 센트럴」 유치 총력

중기부의 「K-바이오 랩 센트럴」 공모 절차가 임박함.

바이오산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은
기계적인 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하면 곤란할 것임.

우리 인천은 바이오 관련 산업·대학·연구소·병원이 모두 집적된 곳으로서,
기술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국내 유일의 도시임.

비슷한 강점을 가진 보스턴이 랩 센트럴을 성공시킨 것처럼,
인천만이 한국형 랩 센트럴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음을 부각시켜야 할 것임.

지난 20년 간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새로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세 차례나 있었고,
전문가들은 미래에도 이러한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의 감염병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천에 집중투자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임.

꼭 우리 인천이 이러한 시대적 과업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정치권 모두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람.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 계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등
대형 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우리 시민들의 바람과 염원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함.

저 또한 지난달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있음. 최종발표 시까지 노력을 이어갈 것임.
5월 한 달도 모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감사함.